군산시, 생활에너지 복지사업 본격화

에너지담당관 신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하절기 냉방비 지원도

군산시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생활에너지 복지사업을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담당관을 필두로 다양한 정책을 시 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난방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에 난

방기구 점검과 노후 부품을 교체하고, LPG 사용 가구 1000여 세대 금속배관 교 체와 퓨즈콕, 타이머콕을 설치한다.

또 저소득층 1000여 세대와 경로당 등 복지시설 100여 곳의 전열기구 안전점검 과 고효율 LED 조명 설치로 에너지 효율 성과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

치비용을 지원하는 주택 지원사업과 함께 이용요금 절감 등 에너지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제고 에도 나선다.

더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확대 해 올해부터는 하절기 냉방비도 지원한

신설된 하절기 바우처 사업으로 해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에너 지 취약계층 4500여세대의 고충이 상당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냉방바우처의 도입 정책에 따라 올 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 냉방 바우처를 신청하면 자동연계돼 겨울철 난 방 바우처도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에너지 효율 과 만족도는 물론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복지 실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이겠다"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 청 에너지담당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주꾸미 산란율 향상 '바다농장' 조성 주력

구시포 ·동호리 해역 900ha 피뿔고등 30만개 추가 살포 어가 소득원 창출 적극 노력

고창군이 주꾸미 산란율 향상을 위해 비 다 농장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최근 상하면 구시포 해역과 해 리면 동호해역 900ha에 피뿔고둥 30만개 를 살포했다.

산란장은 주꾸미가 알을 낳고 번식하게 될 피뿔고둥을 로프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성돼 지역 어민과 함께 관리하게 된다.

군은 1년차 사업에 주꾸미 산란 피뿔고 둥 17만5000개를 살포했고 올해는 2년차 피뿔고둥 30만개를 추가로 살포한다.

고창군 해역은 옛 황금어장으로 불리웠 으나 현재는 주꾸미 자원량이 해마다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투자해 연안해역의 주꾸미 자원 량을 늘리는 특화형 바다목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꾸미 산란 피뿔고둥



고창군 어민들이 주꾸미 산란율 향상을 위해 살포할 피뿔고둥을 어선으로 옮기고 있다.

이 산란기 주꾸미의 산란율을 높이는데 큰 로 불렸던 칠산 앞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황금어장으 고 어민의 새로운 소극원 창출을 위해 지

〈고창군 제공〉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 광역쓰레기매립장 3공구 12월 완공

113억 투입 영파동에 조성

정읍시가 쓰레기 대란을 해소할 광역때 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으로 약 10년을 매립할 수 있다.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은 광역매 립장 제2공구의 사용 연한이 2020년 도래 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진행돼 오고 있다. 매립장은 영파동에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113억원(국비 34억원, 시비 79억원)이 투입돼 진행되고 있다.

제3공구의 매립 용량은 23만2300㎡ (1단계: 13만900㎡, 2단계: 10만1400 m²)로 연간 매립량 약 2만2500㎡를 기준

시는 현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

공구가 조성됐으며 제1공구는 2007년 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 프로그 립 사용 연한이 완료돼 현재 체육공원(야 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금강철새조망대,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공예체험·초등학생 현장학습 등 7개 분야

소중함을 배우는 '2019 사계절 체험 프로 그램'을 내달부터 연말까지 운영한다.

공예품을 만들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한편 광역매립장은 1998년 최초 제1·2 을 느끼는 '생태 공예체험 강좌', 유아와 램인 '애들아, 생태는 처음이지', 지역의 생태를 지키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청 소년 생태 보안관학교' 등 7개 프로그램으

자세한 내용은 금강철새조망대 홈페이 지(http://gmbo.gunsan.go.kr)를참고

금강철새조망대는 금강과 철새의 아름 다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조류 공원, 철새탐험관, 부화체험관, 식물생태 관 등도 갖추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보행 불편자 위한 '장수의자' 설치

전통시장·병원 등 건널목 주변…교통사고 예방 기대

남원시가 보행이 불편 한 시민을 위해 '장수의 자'를 주요 건널목 주변에 설치했다. 〈사진〉

남원시는 무단횡단으 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하고자 장 수의자 설치를 시범사업 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수의자는 병원과 전 통시장 등 어르신 유동인 구가 많은 건널목 주변 6 곳에 설치됐다. 시는 가로 수와 그늘막이 있는 신호 등 등에 장수의자를 배치

시는 장수의자 설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교통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했 다. 앞으로 시는 시민들의 반응과 사용현황 등 다각 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장

수의자를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신호대 기 차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다리와 허리 가 아파서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면



서 "장수의자는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 고를 줄이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주문화재 야행' 내일 개막

한옥마을 야경 배경 문화공연…8개 테마로 꾸며져

전주한옥마을의야경을배경으로다양 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2019 전주 문 화재 야행(夜行)'이 이번 주말 열린다.

전주시는 25일과 26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과 풍남문 일원에서 1차 문화재 야행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 술사의 8 (八) 야심작(夜心作)'을 주제로 8개의 테마와 26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8개 테마는 밤에 비춰보는 문화재를 뜻하는 '빛의 술사'와 밤에 듣는 역사 이 야기 '이야기 술사', 밤에 감상하는 공연 '공연 술사', 밤에 즐기는 음식 '음식 술 사', 문화재에서의 하룻밤을 의미하는 '여행 술사' 등이다.

각각의 테마에는 전주를 기반으로 활 동하는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완성도 를 높인다.

유명 유튜버 10명도 공개방송을 통해 전 세계 유튜버에게 전주한옥마을의 야 경과 문화를 소개한다.

행사 동안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는 태조 어진 행렬 플래시몹과 청년 아티스 다. 트의 음악회, 서커스, 인형극, 마임 공연



등이 펼쳐진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 야행은 젊은 감각이 있는 기획자와 청년이 색다른 시 선으로 접근해 만든 축제"라며 "'전주다 움'이 담긴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23-2번지 (구, 수기동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20층, 77평, 최상층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전망 좋음**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즉시입주가
- 보3천만원에 월110만원에 임대가능
- 건설회사, 보험회사등 사무실 적합
- 시세/감정가 4억 급매 - 3억3000만원

신창동, 근린상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7억 5천만원(조정가)

문의. 010-6834-7400